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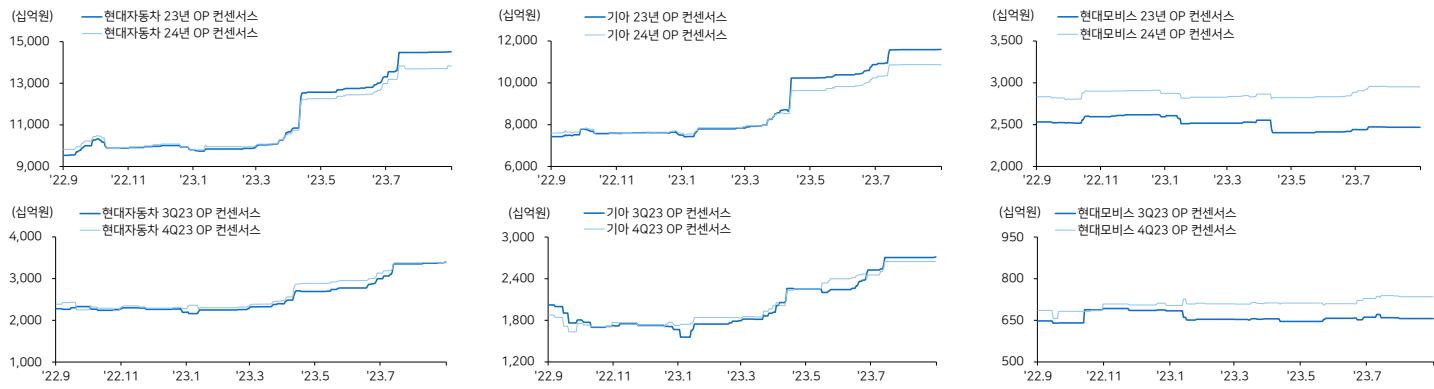
MOBILITY at a glance

2023. 9. 21 (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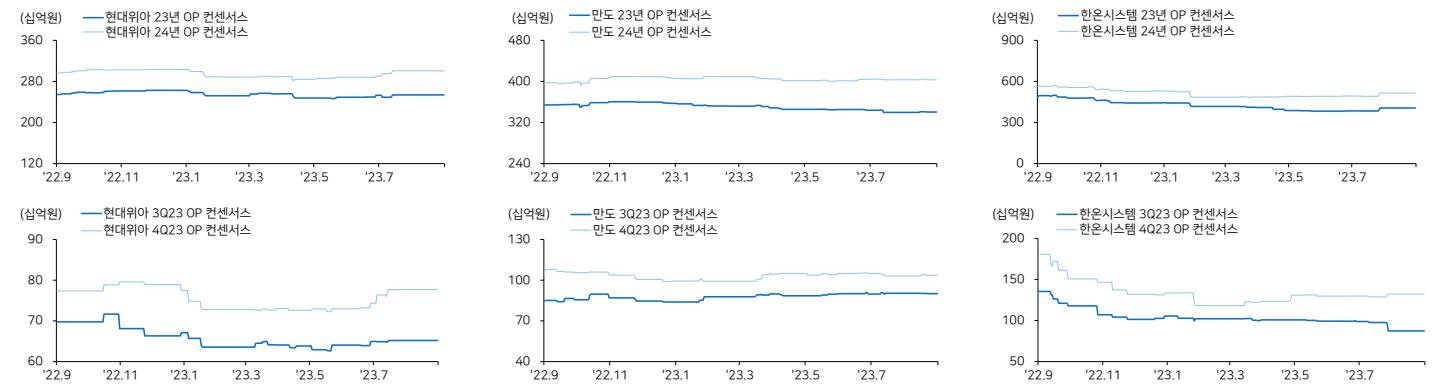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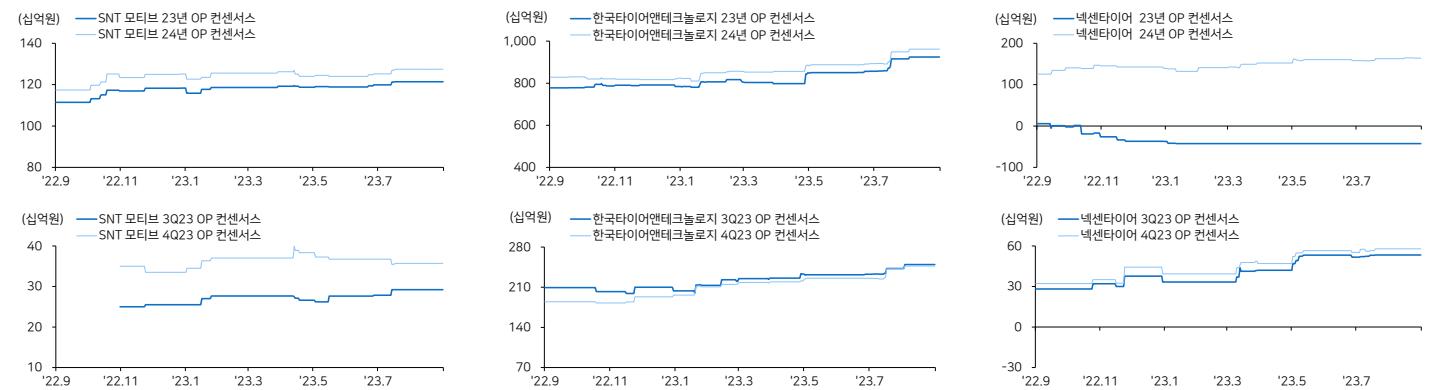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New Lexus brand boss plans big EV overhaul, benchmarking Tesla (Automotive News)

새로운 Lexus 사장이 Tesla를 벤치마킹한 전기차 개편 계획을 발표. 2035년 완전 전기차 전환 이전, 2030년까지 모든 차량에 전동화 옵션을 제공할 방침. 이를 위해 Tesla의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https://han.gl/YzQRaye>

BYD launches affordable Dolphin EV in Japan to unlock market dominated by Toyota (Electrek)

BYD는 일본에서 Atto 3에 이어 363만 엔(2만 4,570달러)부터 시작하는 Dolphin EV 해치백을 출시하여 Toyota와 맞설 전망. Dolphin EV는 70kWh 배터리로 구동되며 기본 모델의 주행 가능 거리는 250마일(400km)로 공개됨
<https://han.gl/PMrKHT>

유럽 8월 신차 판매 전년비 21% 증가…EV 판매는 2배 올라 (한국경제)

ACEA는 8월 유럽의 신차 등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원전 전기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고 발표. 업계는 유럽내 신차 판매가 13개월 연속 성장한 것은 시장이 자동차 부품 부족 현상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https://han.gl/JAJzO>

Anhui plans legislation to further promote local NEV industry (CnEVPost)

안후이성 일법부는 중국 최초의 NEV 전용 법안인 NEV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처음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법안 초안은 무질서한 경쟁 및 불필요한 중복 건설 회피,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공적 NEV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https://han.gl/qjvIQE>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내년 10월 완공…정의선式 속도경영 (더구루)

José Muñoz 현대차 북미법인 사장은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랫폼 아메리카'(HMGMA) 완공 시기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앞당겨 질 것으로 확신. 현대차는 HMGMA 가동 시기를 앞당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할 방침
<https://han.gl/NIEZFr>

Tesla & Australia's CBA Team Up to Support EV Purchases (Tesmanian)

Tesla와 호주 CBA 은행이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결정. 호주의 Tesla 고객은 연 5.49%(비교 금리 연 6.92%)의 고정된 낮은 이자율로 CBA 담보 개인 대출을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이 확대될 전망
<https://han.gl/hRgjol>

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한·중·일에 불리 (연합뉴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이 발표. 전기차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선별될 예정.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는 중국 2.0, 일본 1.9, 한국은 1.7로, 타 국가 대비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
<https://han.gl/PfWaps>

UK Contemplating Pushing Back New ICE Car Ban to 2035 (InsideEVs)

BBC에 따르면 영국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 시행 시기를 2035년으로 5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 당초 설정된 목표는 EU의 목표 시한보다 공격적. 현실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폐지시기를 위한 정책 변경 발표가 곧 진행될 예정
<https://han.gl/JYLPBO>

GM, 10월 CAMI 공장 가동 중단…배터리 납품 지연 탓 (디지털투데이)

GM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봄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CAMI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 브라이트드림 제보 600 및 제보 410 전기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얼티움 배터리 모듈의 납품이 지연되기 때문이며, 2024년 봄에 가동 재개될 예정
<https://han.gl/VazOF>

3천만원대 전기차 드디어…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출시 (데일리안)

KG 모빌리티가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 '토레스 EVX'를 본격 출시. E5 모델 시장 가격은 4750만원으로, 업계는 환경부 보조금과 지역별 보조금을 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실제 구입가격은 내연기관 중형 SUV 수준인 3000만원 대로 예상
<https://han.gl/WdUFe>